

민주노총, 이수호후보·권영길후보 지지 선언

8 흥미리 기자 | ㉠ 승인 2012.12.17 12:28

“노동계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한다”



▲ 노명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계 대표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후보와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과 서울시교육감·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급 조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호, 권영길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노명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본부부장)은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진보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면서 “이수호 후보는 학교현장에서 살아오며 학생과 학부모, 주변과 함께 진보적 교육을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를 망친 보수 후보에 맞서 혁신교육을 이뤄낼 후보이고, 권영길 후보는 산업공단지역인 경남에서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새롭게 혁명할 후보”라고 전하고 “민주진보단일후보 이수호후보와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권영길 후보는 준비된 경남도지사후보로서 대선에도 두 번이나 출마했고 창원지역 재선의원이며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이라면서 “노동자가 다수인 지역에서 행정을 잘 펼칠 후보이니 경남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주문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명박-새누리당정권의 경쟁교육 특권교육 부자교육으로 학교현장은 피폐해졌고, 외고 특목고 자사고 특권교육으로 부자에게 엄청난 기회를 부여하면서 노동자서민에게 사교육비를 부담시켜 경쟁에서 도태시켰다”고 전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혁신학교를 잘 수행할 후보는 이수호후보”라고 역설했다.



▲ 1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계 대표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 권영길 경남지도사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백승민(대학생) 씨가 이수호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수호선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백승민 씨는 “제가 이수호선생님을 지지하게 된 계기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 그 선생님의 삶 때문”이라고 말하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고, 획일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정성과 참된 정책을 갖고 임하는 이수호선생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돼야 한다”면서 “그럴 때 이 나라 교육과 서울시 교육이 바로 바로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1800만 노동자와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노동자지지 선언에 나서며, 아울러 서울시민과 경남도민들께도 아낌없는 지지와 선택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호-권영길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해 삶을 내던진 인물들”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지지하며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이수호-권영길 후보와 함께 새로운 교육, 희망찬 시대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하고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시대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계 대표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 권영길 경남지도사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경제,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특권과 편협한 보수주의를 걷어내고 진보민주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면서 “오는 19일 서울시민들과 경남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당부하고 “노동자들은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경자·노명우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정의현 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양성윤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